



男 문성민·박철우 - 女 김연경·김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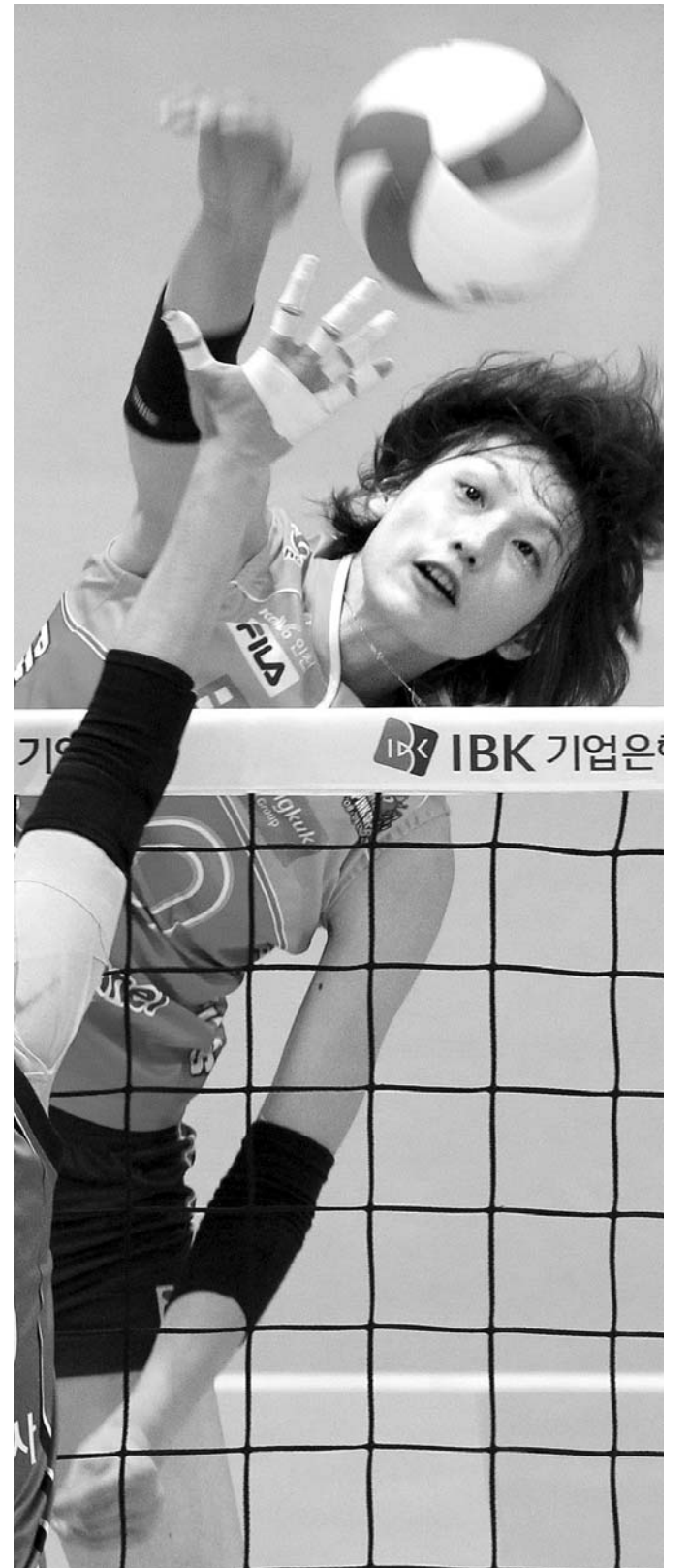
“AG 배구 金 자신있다”



박철우



문성민



김연경



김사니

11월 광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정상에 도전하는 남·여 배구 대표팀의 움직임이 뜨겁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는 남자배구 국가대표팀은 신치용(삼성화재) 감독을 사령탑으로 내달 13일 프랑스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수원·IBK 기업은행컵 프로배구대회를 마치고 6일 태릉선수촌에 소집된 여자 대표팀도 당급전에 한창이다.

한국 남자배구 최고의 '거포'로 꼽히는 문성민(현대캐피탈)과 박철우(삼성화재)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연패 도전의 선봉에 선다. 한국 남자배구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때 잇달아 금메달을 따냈었다.

지난달 일본과 월드컵 예선 2라운드에서 활약한 남자배구 최고의 스파이커 문성민과 '인선 거포' 박철우는 남자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신치용감독의 부름을 받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춘다.

부상 탓에 지난 7월과 8월 연달아 열린 월드컵과 AVC컵 배구대회에 불참한 문성민과 박철우는 8월 말 뒤늦게 대표팀에 합류, 한국이 일본을 격파하고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내는 데 공을 세웠다.

당시 박철우는 일본과 1차전에서 21득점, 문성민은 2차전에서 18득점으로 공격을 주도하며 2연승을 이끌었다.

김요한(LIG손해보험)의 부재는 아쉽다. 허리 통증으로 7월부터 대표팀에서 빠져 있던 김요한은 끝내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다. 대신 '돌도사' 석진욱(삼성화재)을 비롯해 김학민(대한항공) 등이 공백을 메우며 팀에 노련미를 더할 전망이다.

15일 훈련에 들어가는 남자 대표팀은 10월 13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남동부 지역의 중소도시인 볼로르스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대표팀은 전훈 기간

● 남자배구

월드리그 본선티켓 따낸

국가대표 최고 좌우쌍포

“3연패 우리에게 맡겨라”

● 여자배구

흥국생명 우승 단짜콤비

19일부터 AVC컵 출격

“금메달 목에 꼭 걸겠다”

프랑스 현지 프로팀과 다섯 차례 정도 연습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명예회복을 노리며 물불기에 들어간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은 강행군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중국 타이칭에서 열리는 제2회 아시아배구연맹컵(AVC컵)에 참가하는 대표팀은 대회 종료 후 입국해 29일 다시 모일 예정이다.

수원·IBK컵 프로배구대회 흥국생명의 우승 주역인 여자 배구 최고의 거포 김연경(22·일본 JT 마블러스)과 간판 세터 김사니(29·흥국생명)는 AVC컵과 아시안게임 우승을 위해 다시 신발끈을 조여줬다.

김연경은 일본 무대에 데뷔하자마자 득점왕에 오른 데 이어 친정팀 흥국생명에 우승까지 안겨줬다.

체력적인 부담은 김연경이 뛰어넘어야 하는 벽. 김연경은 “일본 리그가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아시안게임 막판 일정과 겹칠 것 같다”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표팀의 기량이 다들 뛰어나 경기가 즐겁다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김연경은 “일본이 세대교체가 잘 되고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면서도 “AVC컵은 아시안게임 전초전인 만큼 좋은 경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꼭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의지를 보였다.

팀의 막내인 격인 김사니의 결의도 남다르다. 김사니는 지난 시즌 KT&G를 여자 배구 정상에 올리고 이적하자마자 흥국생명을 접대해 우승으로 이끌면서 ‘우승청부사’로 떠올랐다. 김사니는 “세터라는 포지션이 공격수에 비해 주목을 못받지만 공격수들이 원활히 공격하도록 뒷받침하겠다. 모든 선수는 이기고 우승하려고 경기를 한다. 고생도 다 그렇게 보상받는 것이다”며 아시안게임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

여자 대표팀은 10월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까지 뛰고 나서 바로 광저우로 날아가야 하는 힘든 일정을 앞두고 있지만 고삐를 늦출 수는 없다. 아시안게임에서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로 끊긴 금메달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4년 전 도하 대회에서는 ‘노메달’의 수모도 겪어 가오는 어느 때보다 단단하다.

최고의 스파이커 김연경과 베테랑 세터 김사니, 레프트 김민지(GS칼텍스), 센터 양효진(현대건설) 등을 앞세워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팀은 AVC컵을 전후해 부상으로 아직 합류하지 못한 황연주(현대건설) 등을 포함한 새로운 엔트리를 꾸려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에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연협뉴스

산행안내 9월 12일(일) ▲광주에스산악회 전북 안주 성제산 9월12일(일) 7시... 9월 14일(화) ▲광주연호산악회 충북 제천시 금수산 9월 14일(화)...

9월 15일(수) ▲광주이대산악회 거창 보현산 조망산행 9월15일(수) 7시30분 상무도시철도공사 출발... 9월 16일(목) ▲광주한국산악회 충남 서대산(금산, 인삼시장) 9월16일(목) 7시50분...

9월 28일(일) ▲광주한빛산악회 강원 설악산 탐방 오색출발~대청봉 A코스 공릉능선, B코스 천불동계곡 10월2일(토) 20시30분... 10월 3일(일) ▲광주한빛산악회 강원 설악산 탐방 10월3일(일)...

www.daewontour.com 해외 트래킹 출발단 모집 ★기차여행·성지순례 ★골프투어·허니문 (주)대원여행사 062) 526-7000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062) 227-9600 •FAX:(062) 227-9500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분포개장공고(2차)